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c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나’ 버리면 누구도 성공할 수 있어

다시 한자리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 한마음이 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떠한 혼란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기의 공법을 그대로 응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의 그 광대한 법은 누가 죽는다 안 죽는다, 굶어 죽는다 잘 먹고 산다, 이런 걸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구를 집 삼아서 살고 있는 전체 생명들입니다. 마음 도리를 공부하다가 진짜로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살리는구나, 그리고 형성시켰구나 하는 걸 아신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알고 믿고 당당하니깐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겁이 나지 않거든요. 잘되는 것만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잘되는 것 못되는 것, 이 길은 다 자기 한손에 쥐어앉아있어 그 게 바로 부처님 공법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나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팔자 운명에 매여 사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아까 잘못된 게 있다면, 그때 잘못된 게 지금 내게 돌아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정확하게 한 생각 잘하고 말도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오는 어려운 일은 내가 전에 이 도리를 물렸을 때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자기의 탓이지, 그건 팔자운명이 아닙니다. 팔자 운명이 어디 붙어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돌맹이 하나, 풀 한 포기도 우리들 인생처럼 실사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팔자나 운명이거나 붙을 수 있었습니까? 다만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을 잘 못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모두 귀가 트이고 발도 움직이려고 밤새도 잘 말죠. 다 이렇게 똥이 똥이니 스승하는 대로 앞뒤를 잘 보고 올바르게 생각해서 올바르게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연기법이며 그대로 부처님 공법이며 그대로 세상 법이거든요.

우리는 살아오던 습이 있어서 그 습을 쉽게 놓칠 못해요. 그 습을 뗄려면 뗄 수가 없는 게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면서도 습에 의해 함부로 행하고, 한다 못한다, 밍다 곱다 등 너무나 이유가 많아요. 옳다고 생각하면 실천을 해보고 자기 체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행은

하지 않고 분별만 많아요. 사람들이 모두 진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습에 의해 그냥러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함으로써 지구라는 집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물에 죽고 불에 죽는 극난을 겪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심성에 의해서 전부 멸할 수도 있고 전부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살린다면 세계 생명을 불국토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 예를 들어 진짜 나를 믿는다면, 각자 나를 믿는다면 거기에서 힘이 배출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 라문제나, 지구문제도 비록 오존층이 터져 다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건 또 그만큼 대처할 능력이 모두에게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저 누가 요만큼만 얘기하면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게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요. 그리고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온통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이 마음이 움직여서는 법이 없어요. 그냥 봐서 체계를 세우고, 그대로 봐서 하지 마음이 움직여서는 법이 없거든요. 왜냐?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우주’ ‘삼천’ 이렇게 됩니다. ‘우주’ 하는 건 평등공법을 의한 것이고 ‘삼천’ 하는 건 과거·미래·현재를 한데 합친 ‘천’이란 말입니다. 한데 합쳐서 ‘대전’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대전세계...

그 대전세계로 말하면 여러분의 근본 그 무전기에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무전기 줄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동적으로 정수에 입력이 되면 입력되는 대로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도입력을 한다면 앞사의 입력은 연방 없으면서 그릇이 되고, 새 입력이 들어오다가 금방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릇이 항상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비어 있으면서 어떤 거라도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다 집중해서 거기 넣어두면 그릇이 작지 않아요. 삼천대전세계를 다 내 주인공 안에 넣어두면 그릇이 작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그릇이 작고 크면 큰 대로 맞고, 그래서 꺼내 쓸 때에도 아무리 꺼내 써도 줄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광대한 이 평등공법을 우리가 지금 한철 사는 동안 잘해야 위 조상님들과 아래 자손들 양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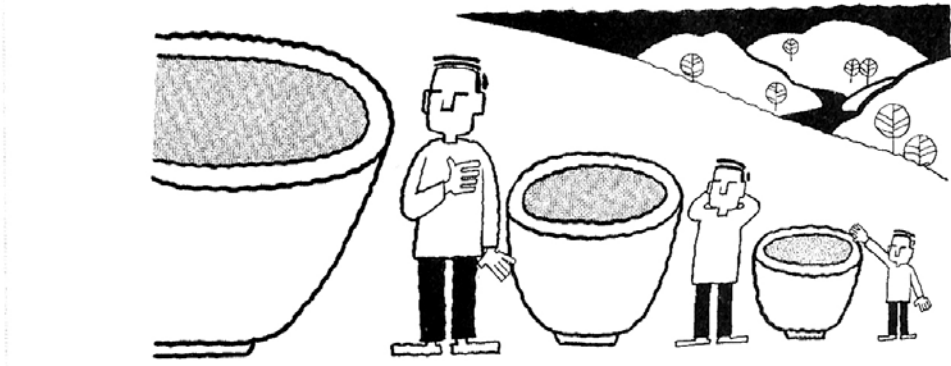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두 한마음 되면 어떤 위기도 이겨냅니다” “지금 내모습 인연 연기현상...팔자 운명 없어”

을 다 건질 수 있고 결국 자유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우주 삼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이 우주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주도 많고 은하계도 많고, 죽 말하자면 도시나 시골이나 이런 차원 밖에는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자체를 이음해서 부르는 게 바로 ‘대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주 삼라만상 대전세계! 굳이 이름 붙일 것도 없지만 이름을 짓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으면 무일 짓고 공부하나요? 항상 얘기 하듯이 유무가 합해서 100%가 된다고 그랬는데 몸중이 없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넓은 길만이

길이 아니니, 갈대가 많고 산이 험하고, 자갈이 많은 그런 길도 길이라고 합니다. 내 이 속에 스승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대로가 있는데 길이 아닌 데를 길이라고 그러면 그걸 믿었어? 그러나 믿든 안 믿든 그대로 나를 내버려두면, 죽은 것이 무슨 말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진짜로 내버렸다면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무슨 상관이나 이겁니다. 내가 산으로 공부하고 다닐 때 온 몸뚱이가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도 생각이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날 버렸기 때문이죠. 버릴려면 아예 그렇게 버리고... 안 버릴려면 안 버리고도 공부할 수 있어요. 이미 길을 걸어 본 사람이 가르쳐주는 걸 듣고도 공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고정됨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거기 놓고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을 하고 다 놓으면 그것도 죽

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지만 나중엔 이것도 죽는 거고 저것도 죽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 분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도 좋은 것이, 그 움직이는 데나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다리 밑 같은 데요. 그런 데를 보면 아주 심곳이 솟아져요. 그런데 어느날 길을 가다가 ‘아하, 이것도 착이로구나! 그걸 좋아하는 것도 착이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 나를 버리면 성공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은 힘이 없이 연기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본인 자체는 그걸 몰라요. 살아오던 습으로 집착이라고 할까, 번뇌같은 것이 그냥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방 걸러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속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들어가더라도 내가 아주 죽어버렸다면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나를 버렸다면 말이예요. 내가 버려서 버리

는 게 아니고 본래는 이미 그렇게 버려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때, 어디 가서든지 이 말은 빼놓지 않고 하는 게 ‘고정되게 볼 수 있느냐? 고정되게 듣고 있느냐? 고정되게 움직여지느냐? 아버지 노릇만 하느냐? 남편 노릇만 하고 아들 노릇만 하고 형 노릇만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고정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할 때 자동적으로 ‘그레’ 하고 대답을 하는 그 아버지가 자기겠습니까? ‘여보’ 할 때 남편으로서 대하는 그때가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기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라는 이름을 떠나서 있는 거지 어디 한군데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고 ‘교’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배우는 생활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건 생활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법을 떠나서 부처님 법도 따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법이라는 것도 어디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이미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불도 생명이 있고 물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체를 먹고 삽니다. 생명체가 있으니까 또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지수화풍을 먹고 또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람으로 흩어지고 물로 흩어지고 원기로 흩어지고 흙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네 군데로 흩어져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의정이 나는 것도 책에서 보려고 하지도 말고 나한테 물물려고 애쓰지도 말고 당신의 그 광대한 묘법에, 내면 세계에 ‘너만이 알려줄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자꾸 두들기세요. 문을 열고 다니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선승이 될 수도 없거나 공부도 못해요. 그러나 그건 논리에 의해서 문이 있고 없는 거지만 이 무의 세계의 문 아닌 문은 논리가 붙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 자유대로 문이 때문이며 이 허공이 탁 터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한철동안 이 도리를 배워서 세계생명을 얻는다면 우주 삼천대전세계를 두루하면서 마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여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53)

창문을 닫아 걸고 햇빛이 들기를 바랄 것인가.

“무명이란 달리 무명이 아니다. 마음 도리를 모르니까 무명이다. 마음은 그 본성이 거울과 같아서 맑고 깨끗하다. 아무리 때가 많이 낀 거울이래도 바탕만은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같다.

마음은 그 본성이 푸른 하늘과 같아서 맑고 깨끗하다. 아무리 먹장구름이 두텁게 깔려있어도 구름 걷히고 나면 하늘은 맑고 깨끗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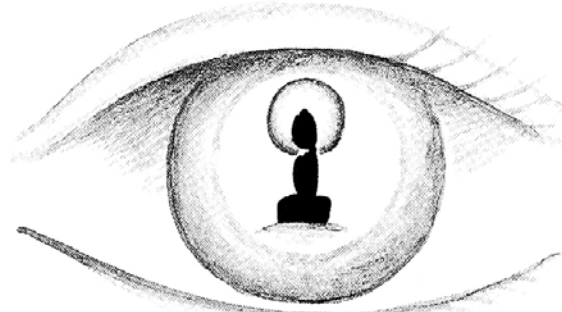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짐막을 만들어 저 맑은 거울을, 저 푸른 하늘을 가려놓고 산다. 그러면서 어둡다고, 괴롭다고 한다.”

마음의 본바탕은 청정하다. 맑고 깨끗하다. 물들지 않고 여여하다. 부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무명(無明)이다. 밝지 못하고 어둡다. 제 마음의 본바탕이 청정하다는 걸 모르고 참나에 생멸(生滅)하는 번뇌 망상을 제 마음인 줄 알고 있으니 어둡다. 때가 낀 거울처럼 뿌

거울이 더러우면 누구라도 이를 닦아내려 한다. 그러나 마음의 거울만은 닦아내려 하지 않고 그 반대로 때를 입히고 있다. 순간 순간에 나고 드는 온갖 상념(想念)들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않고 건전마다 붙잡고 늘어진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견해라고 하면서 애지중지 한다. 누가 다른 생각을 내비치거나 내 주장에 반대한다고 하면 금세 불쾌한 일로 받아들인다. 때로는 배척하고 싸운다. 이른바 나를 지키고자 함이다. 그러니 내게 닥쳐오는 일마다에서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쌓여간다. 무명이란 달리 무명이 아니라 마음 씩씩이의 도리를 모르니까 무명인 것이다.

삶이 어둡고 괴로운 것은 팔자 운명 때문이 아니다. 부처님 법, 마음 법에는 본래 팔자 운명이란 없다. 없는 데도 내가 짓고 만들어서 팔자니 운명이니 이름 붙인 것이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삶이 어둡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기 때문에 삶이 괴로운 것이다. 마음의 본바탕을 잃고 다만 참나에 일어났다가 꺼지고 꺼졌다가 일어나는 내 상념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사니까 어둡고 편협해 지는 것이다.

마음의 본바탕은 허공처럼 맑고 투명하다. 그런 마음에서 금을 긋고 벽을 만들어 가는 게 중생의 모습이다.

이른바 내 생각 내 견해라고 하는 것의 세계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걸 있다고 믿어 벽을 만든다. 그리고 갈수록 고정된 세계로 만들어 간다. 그 때문에 세월이 흐르는데도 벽은 더욱 높아지고 견고해진다. 마치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장벽을 쌓는 것과 같다.

허공엔 벽도 없고 문도 없다. 그런데 허공에 벽을 쌓고 그 속에 갇혀산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자신이 그리하다. 똑똑히 맑은 자리에서 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앉아 이쪽 벽에 부딪히고 저쪽 벽에 이마를 박으면서 괴롭다고 아프다고 한다. 괴롭고 고스런 나머지 왜 내 팔자는 이러냐고, 왜 내 운명은 남 같지 않느냐고 원망도 해보고 탓도 해본다.

어디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가. 문은

없는가 백방으로 찾아 헤매기도 한다.

문을 열어달라고 여기 저기에 부탁도 해보고 이곳 저곳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구원을 청해본다.

그러나 본래 벽도 없고 문도 없으니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 갇힌 사람을 구제해 줄 방법은 없다. 고정된 그 무엇이 있어야 제거해줄지 없애 주든지 할테지만 본래 없는 것이니 도와줄 길이 없는 것이다.

스스로 장막을 걸어버리면 된다. 스스로 만든 벽이니 스스로 허물어버리면 된다.

본래 없는 것을 있다고 마음으로 지었으니 한 생각 바뀌어 지워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고 괴로움도 눈 녹듯 녹아 내린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내 삶에 어둠이 걷히고 맑고 밝은 햇빛이 가득해진다.

문을 닫아 걸어놓고 햇빛을 쬐고 싶다 할 것인가. 벽을 쌓아놓고 밝기를 바라겠는가.

협찬 : 심규하